

2022년 1/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1. 12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1. 12. 1 ~ 12. 17(휴일제외 13일 간)
- 분석대상 : 127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29	98	27	100		
비중	22.8	77.2	21.3	78.7		
업종별(완성품 기준)						
	IT·가전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조선·부품	식음료
매수	28	33	46	13	11	5
비중	22.0	26.0	36.2	10.2	8.7	3.9

※ 업체별 업종 복수응답 가능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요약

- 2022년 1분기 전망BSI '111.9', 2021년 4분기 실적BSI '92.9'
 - 창원 제조업 전망BSI, 4개 분기 연속 기준치 상회해 매출, 생산량 중심으로 회복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매출액(111.9) 증가에도 영업이익(96.8), 자금조달(94.4) 등은 기준치 하회
 - 국제원자재 가격과 실질임금, 해상물류비의 가파른 상승 등 생산자 물가 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수익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움 따를 것

- 업종별·기업형태별 전망BSI
 - 조선·부품(136.4), 철강(133.3)을 중심으로 기계(113.0), 자동차·부품(106.1) 등은 창원 주력업종 대부분 긍정적 전망
 - 지난해 창원 제조업 이끈 가전·IT 업종은 보합
 - 대·중견기업(110.3), 중소기업(112.4), 내수위주기업(117.2)은 긍정적 전망
 - 수출위주기업(92.6) 부정적 전망
 - 지난해 창원 제조업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수출기업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

- 응답업체 66.9%, '아직 내년 사업계획 수립하지 못했다'
 -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이유로
'시장 불확실성' 42.6%, '현재 위기대응에 집중해 계획수립 지연' 24.5%
 - 사업계획 수립 완료로 응답한 업체 32.5%,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

- 2022년 예상 리스크, '원자재가격 상승'(33.8%), '코로나 여파 지속'(27.5%)
 - 중소기업은 '코로나 여파 지속'(29.4%), '금리인상'(12.1%)에,
대·중견기업은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27.0%), '탄소절감 등 환경 이슈 대응 부담'(9.5%)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중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높은 수준의 환율이 맞물려 채산성 악화 우려

Ⅲ

2022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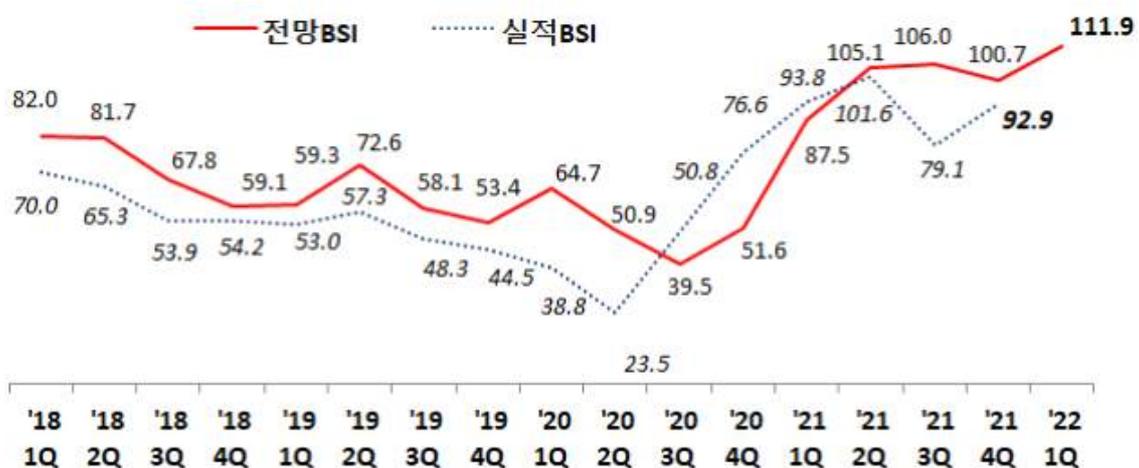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창원지역 2022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 지수)가 '111.9'(기준치 100)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4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가 매출, 생산량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매출, 생산량 증가에도 영업이익, 자금조달, 공급망안정성 등의 악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내년 1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는 기준치를 밑돈 '92.9'로 조사되었음.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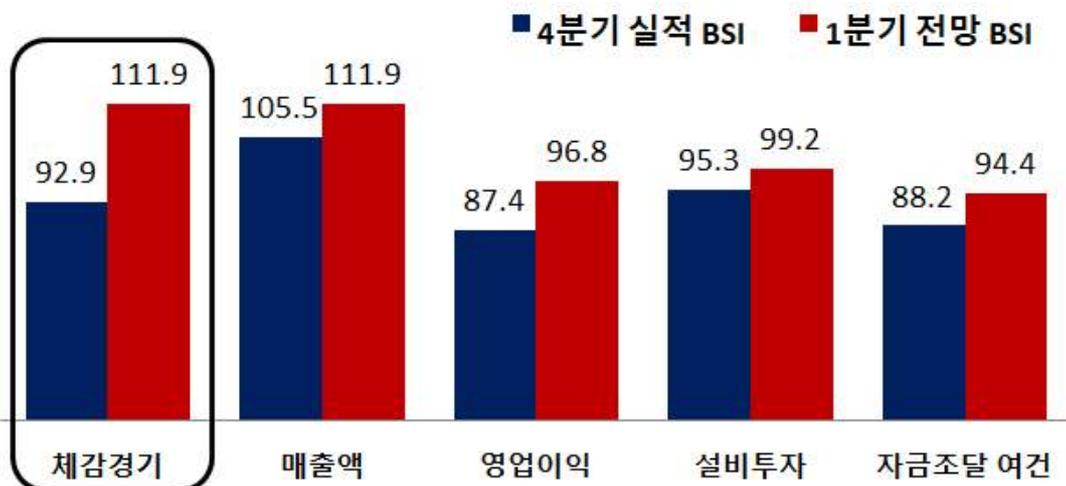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2년 1분기 항목별 전망BSI는 매출액(111.9) 부문은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96.8), 자금조달여건(94.4) 부문은 기준치를 밑돌았음. 설비투자 부문은 '99.2'로 조사되어 약보합을 나타냈음.
- 2021년 4분기 항목별 실적BSI를 살펴보면, 매출액(105.5)은 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체감경기(92.9)가 기준치를 하회한 것은 영업이익(87.4), 자금조달 여건(88.2) 등 수익성 확보와 관련한 여건들이 회복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국내외 산업활동 재개와 시장 회복으로 매출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수익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국제원자재 가격과 실질임금, 해상물류비의 가파른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생산자물가 증가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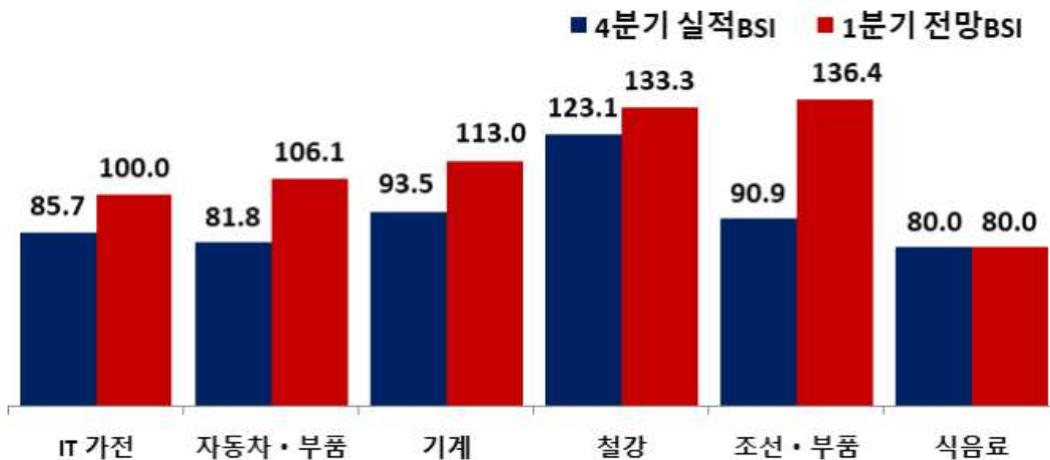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3. 업종별·기업형태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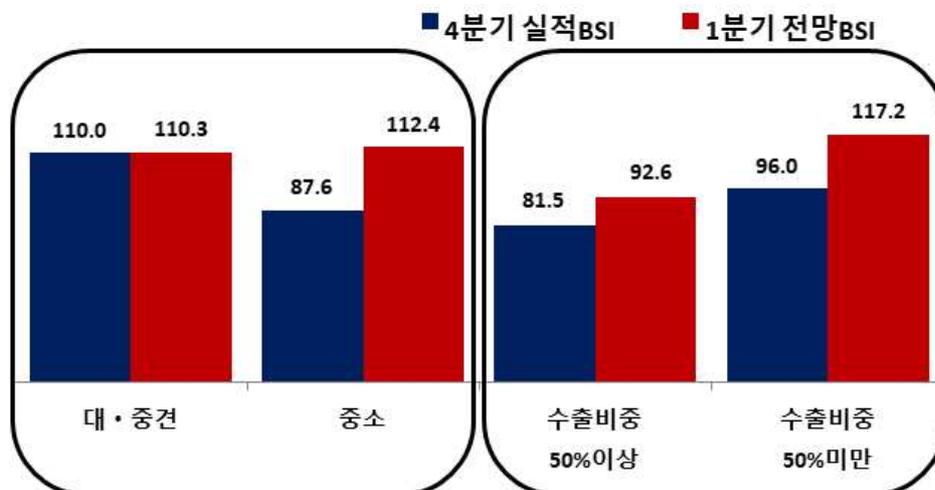
- 2022년 1분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은 조선·부품(136.4)과 철강(133.3) 업종임. 기계(113.0)와 자동차·부품(106.1) 업종도 기준치를 상회했으며, 지난해 창원지역 제조업을 지탱해온 IT·가전(100) 업종은 보합으로 조사되었음.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 창원 제조업의 규모별·매출형태별 전망을 보면, 대·중견기업군(110.3)과 중소기업(112.4), 내수위주기업(117.2)은 2022년 1분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반면, 수출위주기업(92.6)은 부정적으로 전망했음.

기업 형태별 실적 및 전망 BS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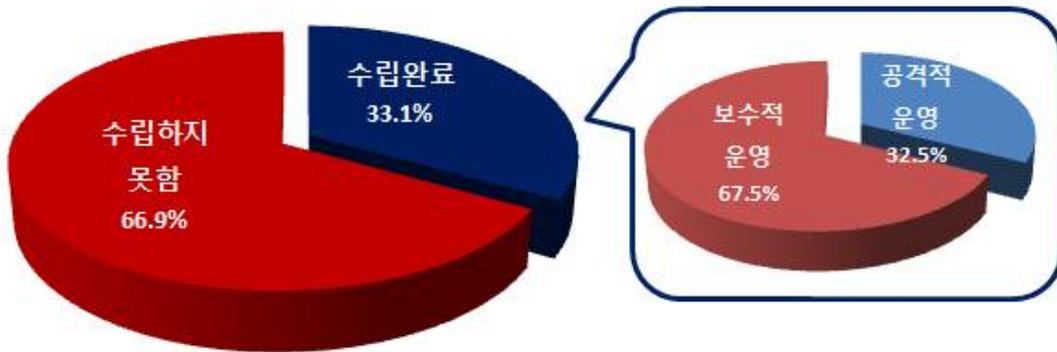
2022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상 리스크

1. 2022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방향

- 창원지역 제조업(n=127)을 대상으로 2022년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66.9%는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33.1% 만이 ‘수립을 완료했다’라고 답했음.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67.5%, ‘공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2.5%가 답했음.

2022년 사업계획 수립 여부(n=127)



-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42.6%가 ‘시장 불확실성이 커 사업목표, 전략수립 어려움’으로 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재 위기대응에 집중해 계획수립 지연’ 24.5%,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여부 검토 지연’ 14.9%, ‘특별한 이유없음’ 11.7%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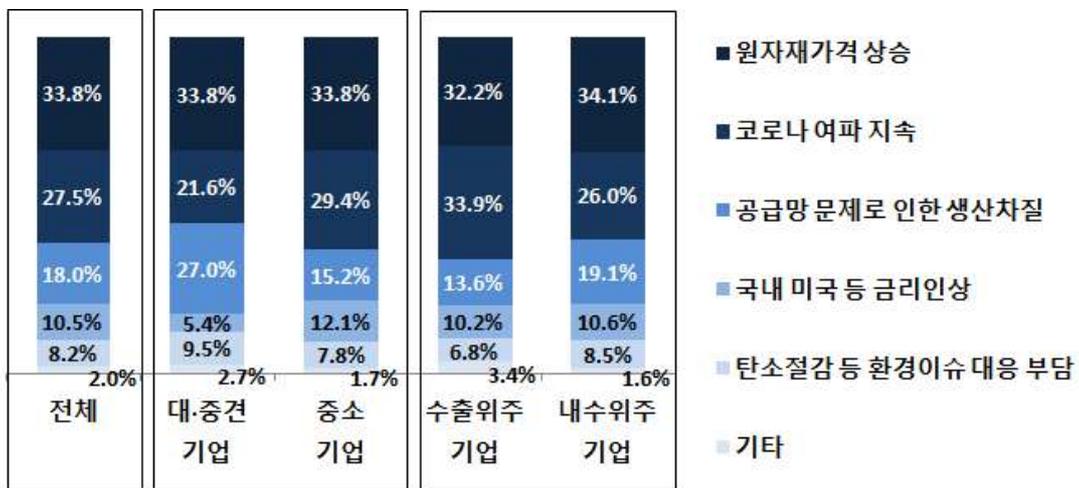
코로나19, 원자재수급 불안정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향후 사업계획 수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율(원/달러)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n=108)의 36.5%가 ‘1,150원대’로 답해 가장 많았다.

2. 2022년 예상 리스크

- 2022년 예상되는 리스크로 응답업체(n=127)의 33.8%가 ‘원자재가격 상승’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로나 여파 지속’(27.5%), ‘부품조달 등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18.0%), ‘국내 및 미국의 금리인상’(10.5%), ‘탄소절감 등 환경이슈 대응 부담’(8.2%), ‘기타’(2.0%) 순으로 응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33.8%),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27.0%), ‘코로나 여파 지속’(21.6%), ‘탄소절감 등 환경 이슈 대응 부담’(9.5%), ‘국내 및 미국의 금리인상’(5.4%), ‘기타’(2.7%) 순으로 답했음.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 여파 지속’(29.4%), ‘국내 및 미국의 금리인상’(12.1%)으로 응답한 비중이 대·중견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매출형태별로 수출위주 기업은 ‘코로나 여파 지속’을 꼽은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32.2%),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13.6%), ‘국내 및 미국 등 금리인상’(10.2%), ‘탄소절감

2022년 예상 리스크(n=127)



등 환경이슈 대응 부담’(6.8%), ‘기타’(3.4%) 순으로 답했음. 내수위주 기업의 경우 ‘국내 및 미국의 금리인상’(19.1%)을 꼽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모든 기업군에서 원자재가격 상승과 코로나 여파의 지속을 가장 큰 리스크로 예상하고 있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최근 높은 수준의 환율과 맞물려 가파른 생산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3. 대한민국 중요 아젠다

-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무엇으로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65.4%가 ‘경제 활성화’를 꼽았음. 다음으로 ‘부동산 안정’ 14.6%, ‘국제관계 대응’ 8.5%, ‘정치 선진화’ 7.7%, ‘환경이슈 대응’ 2.3%, ‘복지 확충’ 1.5% 순으로 답했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아젠다(n=127)

